

큰스님 수행한담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23

今 達眞心 契無生滅之覺性  
금 달진심 계무생멸지각성  
起無生滅之妙用 妙體眞常 本無生滅  
기무생멸지묘용 묘체진상 본무생멸  
妙用隨緣 似有生滅 然從體生用  
묘용수연 사유생멸 연중체생용  
用即是體 何生滅之可有  
용즉시체 하생멸지가유  
達人即證眞體 其生滅 何干涉耶  
달인즉증진체 기생멸 하간섭야  
如水以濕性爲體 波流爲用  
여수이습성위체 파랑위용  
濕性元無生滅故  
습성원무생멸고  
波中濕性 何生滅耶 然波離濕性  
파중습성 하생멸야 연파리습성  
別無故 波亦無生滅  
별무고 파역무생멸

유일진심 전신수용 무별의탁  
又於示現門中 隨意往生 而無障礙  
우어시현문중 수의왕생 아무장애

그러므로 옛사람이 '은 대지가 곧 사문의 한쌍 바른 눈(正眼)이요, 은 대지가 하나의 가람이니, 이런 이치를 깨달은 이의 안심입명치이리라' 하였다. 이미 진심을 통달했다면 사생 육도(四生六道)가 한 순간에 소멸하고 산하대지가 다 이 진심이다. 그러나 진심을 떠난 바깥에 따로 의탁할 데가 있을 수 없다. 이미 삼계의 망령된 인연이 없으니 반드시 육도의 망령된 과보는 없게 되고, 망령된 과보가 이미 없다면 무슨 의탁을 말하겠는가. 또 따로 피차란 없는 것이며, 이미 피차가 없는데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는가.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진심이라서 전신(全身)으로 수용하고 있으니 따로 의탁할 것이 없고, 또한 나타나고자 하는 곳이면 마음대로 왕생하되 아무런 장애가 없다.

故傳燈云 溫操尙書 問圭峰曰  
고전등운 온조상서 문규봉왈  
悟理之人 一期壽終 何所依託  
오리지인 일기수종 하소의탁

그러나 지금 진심에 통달하면 생멸이 없는 깨달음의 성품에 계합해서 생멸이 없는 신묘한 작용을 일으킨다. 신묘한 본체는 진심하고 한결같이서 본래 생멸이 없으나 신묘한 작용의 인연을 따르므로 생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본체로부터 작용이 생긴 것이니 작용이 곧 본체인데 어찌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달인(達人)은 진

시방세계가 오직 하나의 진심이니 무슨 옳고 그름이 따로 있겠는가

실의 본체를 증득하였으니 어찌 생멸이 간섭하겠는가. 마치 물이, 습성(濕性: 물 그 자체를 뜻함)이 본체가 되고 파도가 작용이 되는 것과 같다. 물 그 자체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파도 속의 물인들 어찌 생멸이 있겠는가. 그러나 파도가 물 자체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 역시 생멸이 없는 것이다.

圭峰曰 一切衆生 無不具足靈明覺性  
규봉왈 일체중생 무불구유영명각성  
與佛無殊 若能悟此性 即是法身  
여불무수 약능오차성 즉시법신  
本自無生 何有依託 靈明不昧  
본자무생 하유의탁 영명불매  
了了常知 無所從來 亦無所去  
요요상지 무소종래 역무소거

所以古人云 盡大地 是沙門一隻正眼  
소이고인운 진대지 시사문일척정안  
盡大地 是箇伽藍 是悟理人  
진대지 시개가람 시오리인  
安身立命處 既達眞心 四生六道  
안신입명처 기달진심 사생육도  
一時消殞 山河大地 悉是眞心  
일시소운 산하대지 실시진심  
不可離此眞心之外 別有依託處也  
기달진심외의 별유의탁처야  
既無三界妄因 必無六趣安果  
기무삼계망인 필무육취망과  
妄果既無 說甚依託 別無彼此  
망과기무 설심의탁 별무피차  
既無彼此 則何可不可也 卽十方世界  
기무피차 즉하가불가야 즉시방세계  
唯一眞心 全身受用 無別依託

그러므로 <전등록(傳燈錄)>에 온조상서가 규봉선사에게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수명을 다하면 어디에 의탁합니까" 하고 물으니 규봉선사께서 "모든 중생이 신령스럽고 밝은 깨달음의 성품을 갖추고 있으므로 부처와 다름이 없다. 만일 이 성품이 곧 법신인줄을 깨달았다면 (법신은) 본래 태어남이 없는데 무슨 의탁이 있겠느냐. 신령스럽고 밝아 어둠이 없고, 항상 분명히 알되 어디서 온 것도 아니요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공적(空寂)으로써 자체(自體)를 삼되 그것을 육신이라 인정하지 말며, 신령스럽게 아는 자리로 자기 마음을 삼되 망령된 생각을 그것이라고 인정하지 말라."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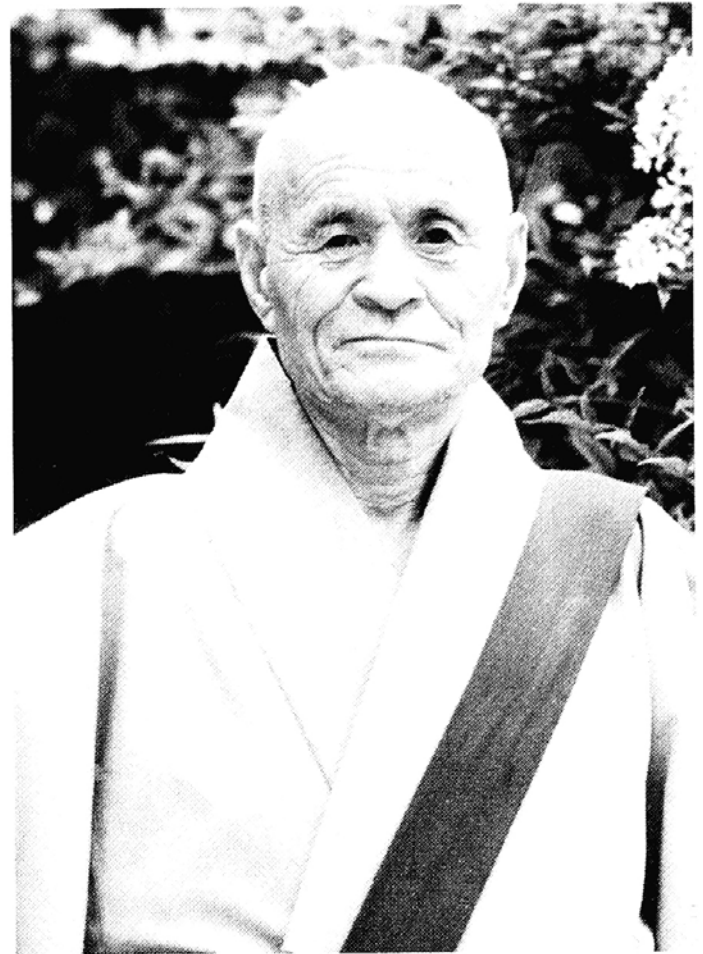
성공스님 (부산 안양사 조설)

집을 지을 때 집을 받치는 네기둥이 있듯이 불법을 익혀 나가는데도 화엄경의 사주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네 기둥은 신(信)·해(解)·행(行)·증(證)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마치 집의 네 기둥 중 하나가 빠진 것과 같아서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불자들은 신·해·행·증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흔히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믿어야 합니다. 유교의 오행 금목수화도와 오상 인의예지신의 맥락을 짚어 가다 보면 신(信)이 토(土)에 해당합니다. 즉 믿음은 흙사 땅덩어리와 같다는 말이지요. 땅이 바탕이 되어 산천이 뿌리내리듯 흙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듯이 믿는 데만 그치지 말고 믿음을 바탕으로 배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대전제로 알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짚어 다니고 책을 백권 읽어도 실천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눈을 감고 씨앗을 심어야 하듯이 아무리 불법을 믿고 배워 알아도 실천이 없으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물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한다는 것은 앞의 세가지가 성숙하면 저절로 이루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신·해·행·증 어느것 하나라도 가빠이 여기거나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견성성불을 이야기 합니다. 마음 깨쳐 부처 된다는 말인데 그 말에 색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한쪽에만 치우치면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귀의불양족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가지가 부족한 부처님이라는 말인데 그 두가지란 공부하는 것과 복 짓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해서 견성성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어야 합니다. 지악작선, 즉 악을 짓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닦고 복을 지어야 자동차 수레바퀴처럼 공부와 복을 짓는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만 하고 중생제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공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신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중생계로부터 시작하셨잖습니까. 또 불경에도 자타일시 성불도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계도가 궁극적인 공부인 것이며 그것이 대승입니다. 복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보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외시, 내시, 법시가 있는데

외시는 물질적 측면의 보시를 말하며 내시는 몸통아리 보시, 즉 요즘 한창 생명을 나누는 운동이라고 하는 장기기증이나 굶주린 효랑이에게 몸을 던져준 이야기 등에서 알수 있는 것이죠. 법보시는 법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 위에 부처님을 받들어 이고 다니는 것보다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법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전부를 마치 밤송이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바로 밤가시와 같습니다. 물질에 치중하다 보면 서로 찌르게

- 1926년 경남 양산 생
- 1941년 운봉스님을 계사로 시미계 수지
- 1943년 통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1948년 통도사 불교대학 대교과 졸업
- 1949년 금정선원 하안거 성만후 정혜사 선원, 도지사 선원 등 제발선원에서 30만여 명
- 1955년 충무포교당 주지 역임
- 1957년 충무 율회사 주지 역임
- 1967년 진주 연화사 주지 역임
- 1973년 금강경 독송 태일 제작·이미티링, 천수경, 부모은중경 다수 녹음
- 현재~1971년 이후 부산 안양사 주석



“찌뿌리고 갈아야 결실맺듯 믿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 견성성불의 싹 돌아오요”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찌르고 이웃이 이웃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탐, 진, 치, 삼독심은 밤송이의 두꺼운 껍데기입니다. 물질도 소용없고 삼독심도 결국은 버려야 하는 불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번뇌는 속껍질입니다. 세세한 번뇌까지 모두 벗겨 버려야만 발발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견정여래요, 여래진실상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선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밤 알맹이마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알맹이에서 싹이

나면 또 다른 밤송이가 되기 때문이죠.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지요. 물질에 대한 것. 심적인 삼독심, 미세한 잔걱정까지 심지어 여래진실상마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견성성불했다는 생각마저 버리지 않으면 백천재물이 눈에 든 모래와 같이 됩니다. 죄도 본래 성품이 없어 부처도 중생도 헛된 소리요, 모래 하나 털갈 하나 전부터 버리고 나면 나도 다른 이도 부처도 없고 불법의 대진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소유상이

라는 것은 세속적인 물질의 세계를 총괄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물질적인 세계를 총괄해 보면 이것은 전부 유의 세계입니다. 모래도 유의 세계요, 털갈도 유의 세계요, 말한마디도 유의 세계요 손가락 한 번 까딱 하는 것도 유의 세계요, 할도 유의 세계요, 주장자도 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극단적인 차원에서는 유의 세계를 초월해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무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털갈하나라도 남겨놓으면 안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털갈 하나는 없는 것으로 치고 무의 세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법의 세계는 무의 세계이며 바로 유의 세계에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물과 얼음으로 비유하면 물이 흘러가는 것은 유의 세계요, 물이 얼어 동요가 없는 적정한 얼음이 되는 것은 무의 세계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것에도 영도에서 어는 것과 영하 심도에서 어는 것과는 다른 것처럼 견성

도서 출판 **지장불교** 출판 (051)627-5498 (051)623-3946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장안 석용산 스님

‘지장사상’은

잘하면 상을 주어 천당 보내고 못하면 벌을 주어 지옥 보내는 극단의 사상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제도되어 지옥이 텅 빌 때까지는 자신의 성불도 포기하겠다는 구제사상 이야말로, 이 시대 중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상이요, 신앙입니다.

지장사상과 지장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책으로 지장기도를 하는 불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

지장불교 공양차제법

찬술/석용산 스님 · 엮음/석효선 스님

이 책에 실려있는 '지장충부경', '지장왕보살지혜심경', '지장경약찬계' 등은 스님께서 직접 찬술하셨으며, '지장예참', '지장왕보살예찬문' 등은 한글로 번역하고, 노래로 엮어 대중들이 편히 읽고 신심 나게 독송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각권 값 3,800원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 ① 일어버린 나를 찾아서
- ② 여보게 저승갈 때 뭘가지고 가지
- ③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절
- ④ 성숙은 아픔의 동굴을 지나서
- ⑤ 친구하자, 친구하자

이 책들은 그 동안 스님께서 발표하신 글들 중 이 시대에 필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아 작은 책자로 다시 엮었습니다. 세상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스님의 참모습을 바로 보고 진정한 자기실현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마하무드라의 노래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지장기도법회

- 지장예참기도 ▶ 음력 매월 초하루(부산, 대구포교원) 오전 11시
- 지장천도기도 ▶ 음력 매월 14일(부산), 18일(대구) 오전 11시
- 지장예찬기도 ▶ 매주 수요일(부산), 금요일(대구) 오전 11시